17세기 『大方廣佛華嚴經疏』의 간행과 승려문파*

- 삭녕 용복사본과 순천 송광사본을 중심으로 -

The Publication of *Daebanggwangbul-Hwaomgyeongso* and Monk Clans in the 17th Century

- With a focus on the editions of Yongboksa Temple in Saknyeong and Songgwangsa Temple in Suncheon -

김 단 일 (Kim, Dan-Il)**

◁ 목 차 ▷

1. 머리말
2. 17세기에 간행된 『대방광불화엄경소』
3. 삭녕 용복사본과 순천 송광사본 분석
4. 17세기 간행 『대방광불화엄경소』와 승려문파의 관계
5. 맺음말
<참고문헌>

<초 록>

이 연구는 17세기에 간행된 삭녕 용복사본과 순천 송광사본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의 간행 배경을 살펴본 연구이다. 『대방광불화엄경소』는 정원(淨源, 1011-1088)이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과 징관(澄觀, 738-839)의 주석을 회편한 120권 분량의 불서이다. 고려시대 전래된 이래로 17세기까지 여러 차례 간행되었는데 특히 17세기에는 삭녕 용복사와 순천 송광사에서 2년 차이로 간행되었다. 삭녕 용복사본과 순천 송광사본 『대방광불화엄경소』는 형태적으로는 계선의 차이가 있지만, 원문 내용에서는 이전 시기의 『대방광불화엄경소』와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두 판본의 간행 관련 기록을 살펴보면 간행 참여자들이 각각 삭녕 용복사본은 청허문파, 순천 송광사본은 부휴문파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서 17세기 『대방광불화엄경소』 간행에는 승려문파라는 요소가 크게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다.

要語: 『대방광불화엄경소』, 용복사, 송광사, 청허문파, 부휴문파, 17세기

<ABSTRACT>

This paper presents an investigation into the background of *Daebanggwangbul-hwaeomgyeongso*, published at Yongboksa Temple in Saknyeong and Songgwangsa Temple in Suncheon in the 17th century. *Daebanggwangbul-hwaeomgyeongso* is a collection of 120 Buddhist books based on the collection and editing of Avatamsaka Sutra and the annotations of chéngguān (澄觀, 738-839) by jìngyuán (淨源, 1011-1088). Since its introduction during Goryeo, it was published many times into the 17th century. Especially in 17th century, It was published at Yongboksa Temple in Saknyeong and Songgwangsa Temple in Suncheon with a two-year interval between them. The editions of *Daebanggwangbul-hwaeomgyeongso* published at Yongboksa Temple in Saknyeong and Songgwangsa Temple in Suncheon are different forms as each line has an end mark. However, their content is not that different from the original content of the *Daebanggwangbul-hwaeomgyeongso* editions published before. A closer look at the records about the publication of the two editions shows that the participants in publishing the edition at Yongboksa Temple in Saknyeong and Songgwangsa Temple in Suncheon were associated with the Cheongheo and Buhyu Clan, respectively.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the monk clans had huge impacts on the publication of *Daebanggwangbul-hwaeomgyeongso* in the 17th century.

Key words: *Daebanggwangbul-hwaeomgyeongso*, Yongboksa Temple, Songgwangsa Temple, Cheongheo Clan, Buhyu Clan, 17th century

---

* 이 논문은 2019년 4월 26일 한국서지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발표한 "17세기 『대방광불화엄경소』의 간행과 승려문파"의 원고를 수정·보완한 것임.

** 한국학중앙연구원 고문헌관리학전공 박사과정(oxy54321@hanmail.net)

투고일: 2020년 8월 20일 최초심사일: 2020년 8월 31일 게재확정일: 2020년 9월 14일
서지학연구, 제83집, 221-242, 2020. https://doi.org/10.17258/jib.2020..83.221

www.kci.go.kr

1. 머리말

『대방광불화엄경소(大方廣佛華嚴經疏)』(이하 『화엄경소』)는 송나라의 진수 정원(晉水 淨源, 1011-1088)이 실차난타(實叉難陀) 번역의 『대방광불화엄경(大方廣佛華嚴經)』과 청량 징광(淸凉 澄觀, 738-839)의 주석을 회편한 불서이다. 『화엄경소』는 의천(義天, 1055-1101)에 의해서 고려로 전래된 이래 숙종 16년(1690) 『대방광불화엄경소초(大方廣佛華嚴經疏鈔)』가 간행될 때까지 『대방광불화엄경』의 주석서로서 여러 차례 간행되었다.

『화엄경소』는 다양한 판본이 간행되었기 때문에 『화엄경소』의 간행과 관련된 다양한 선행연구가 있다.[1] 그중 최근 『화엄경소』의 판본들을 정리한 연구와 새로운 판본을 소개한 연구가 주목된다.[2]

선행연구를 통해서 정리된 『화엄경소』의 판본을 살펴보면 한가지 특기할 만한 점이 있다. 『화엄경소』는 분량이 총 120권에 달하는 거질의 불서이다. 『화엄경소』를 간행하기 위해서는 매우 많은 경비가 소요된다. 따라서 『화엄경소』는 약 1세기를 간격으로 간행되었다. 그러나 17세기의 간행 양상을 살펴보면 삭녕 용복사본과 순천 송광사본은 불과 2년 차이로 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삭녕 용복사본과 순천 송광사본이 간행된 17세기는 불교사에서 전란이 끝나고 불교계가 재편되는 시기로 평가된다. 법통(法統)과 관련하여서는 임제종(臨濟宗)을 해동으로 전한 태고 보우(太古 普愚, 1301-1382)를 종사(宗師)로 삼고 청허 휴정(淸虛 休靜, 1520-1604)과 부휴 선수(浮休 善修, 1543-1615)에 이르는 법맥을 체계적으로 구성한 임제태고법통설(臨濟太古法統說)이 제기되며, 법통설을 바탕으로 청허 휴정과 부휴 선수의 제자들로 이뤄진 승려문파(僧侶門派)가 형성되어 불교계를 주도해갔다.[3]

---

1) 『화엄경소』의 간행을 연구대상으로 삼은 주요 논고를 작성시기에 따라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음.
천혜봉, “義天의 入宋求法과 宋刻 注華嚴經板,” 「동방학지」 제56권(1987).
송일기, “順天 松廣寺 刊行 佛書考 - 朝鮮朝 有刊記佛書를 중심으로,” 「서지학연구」 제10집(1994).
남권희, “『大方廣佛華嚴經疏(卷三十五)』 高麗 口訣本에 대한 書誌的 硏究,” 「한국전통문화연구」 제12집(1997).
최영호, “海印寺 所藏本 『大方廣佛華嚴經疏』·『大方廣佛華嚴經隨疏演義鈔』의 판각성격,” 「한국중세사연구」 제4집(1997).
노기춘, “順天 松廣寺 開板佛事에 관한 연구(Ⅱ) - 壬亂以後 有刊記 佛書를 中心으로,” 「서지학연구」 제26집(2003).
임기영, “海印寺 寺刊板殿 所藏 木板 硏究,” (박사학위논문, 경북대학교 대학원, 2009).
조명제, “朝鮮後期 松廣寺의 전적 간행과 사상적 경향,” 「보조사상」 제32집(2009).
이상백, “歸眞寺와 간행 불경 연구,” 「서지학연구」 제58집(2014).
오용섭, “혜순이 간행한 용복사 불서,” 「서지학연구」 제63호(2015).
문상련, “수덕사 塑造 여래좌상 腹藏 典籍類 고찰,” 「정토학연구」 제30집(2018).
오용섭, “조선시대 『대방광불화엄경소』의 간행,” 「서지학연구」 제76호(2018).
김단일, “17세기 조선의 『大方廣佛華嚴經疏』 간행과 승려 문파의 상관성,” (석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9).
박도화, “碧巖 覺性 발원 順天 松廣寺刊 大方廣佛華嚴經疏 變相圖,” 「강좌미술사」 제52호(2019).

2) 문상련(2018). ; 오용섭(2018). ; 김단일(2019).

3) 선행 연구들에는 “系派”, “門中” 등의 다양한 용어가 사용되나, 본고에서는 『서역중화해동불조원류(西域中華海東佛祖源流)』에 기록된 “門派”라는 용어를 사용함. 다만 “門派”라는 용어가 법맥(法脈)의 지류(支流)를 지칭하는 경향도 있기 때문에 “門派”라는 용어가 적절한지에 대해서는 추후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됨.

www.kci.go.kr

승려의 교육과 관련해서는 강학(講學)과 수행(修行)에 각각 사집과(四集科), 사교과(四敎科), 대교과(大敎科)로 구성된 강학체계(講學體系)인 이력과정(履歷科程)과 경절문(徑截門), 원돈문(圓頓門), 염불문(念佛門)으로 구성된 수행체계(修行體系)인 삼문수학(三門修學)이 형성되었다.[4] 이 중 주목할 만한 점은 이 시기 규정된 이력과정 중 대교과의 과목에『대방광불화엄경』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실이다.[5] 17세기에 간행된『화엄경소』는 대교과의 교재로써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였을 때, 삭녕 용복사본과 순천 송광사본『화엄경소』의 간행은 17세기 불교사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판단된다.

본고에서는 17세기 간행된 삭녕 용복사본과 순천 송광사본『화엄경소』의 전체적인 간행 현황을 살펴본 후, 판본의 형태사항 및 간행 관련 기록 등을 비교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당시 17세기의 불교사적 변화인 승려문파, 이력과정 형성 등의 역사적 사실과 대조하여 17세기 삭녕 용복사본과 순천 송광사본『화엄경소』가 각각 간행되었던 배경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2. 17세기에 간행된『대방광불화엄경소』

17세기에 간행된 삭녕 용복사본과 순천 송광사본『화엄경소』를 살펴보기 전에『화엄경소』의 전체 판본에 대해서 정리하고자 한다.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들을 통해서 정리한『화엄경소』의 판본은 <표 1>과 같다.[6]

<표 1>『화엄경소』판본

시대	연도	판본
고려	1087년 이전	의천 전래본
조선	[1440-1444]	광주 청계사본
	1556-1564	서흥 귀진사본
	1628-1631	삭녕 용복사본
	1633-1635	순천 송광사본

의천 전래본은 의천이 교장(敎藏)의 간행을 위해 송나라의 정원에게 요청하여 국내에 수입한 판본이다.[7] 은 3,000량을 주고『화엄경소』의 목판 판각을 의뢰하였고, 고려 선종 4년(1087)에 송나라 상인 서전(徐戩) 등이『화엄경소』의 목판 2,900여 편을 고려로 가져왔다.[8] 보물 제964호로 지정된

4) 손성필, "16·17세기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동향,"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3), 2.
5) 이종수, "조선후기 불교 履歷科目의 선정과 그 의미,"「한국사연구」제150집(2010), 124-126.
6) 오용섭(2018), 139-151. ; 김단일(2019), 22-33.
7) 의천 전래본이라는 용어는 본고에서 판본의 구분을 위해 사용한 용어임.
8) 천혜봉(1987), 904.

www.kci.go.kr

『화엄경소』의 변상도와 「각주화엄경도변상연기(刻注華嚴經都變相緣起)」를 통해서 공민왕 21년(1372)에 변상도를 따로 판각한 것을 알 수 있다.[9] 의천 전래본의 경판은 『세종실록(世宗實錄)』과 일본의 사료를 통해 일본의 교토 상국사(相國寺)로 경판이 이운된 후, 두 차례의 화재로 소실된 것이 확인된다.[10] 광주 청계사본은 『동문선(東文選)』 「화엄경발(華嚴經跋)」에서 판각과 관련된 기록이 발견된다. 이 기록을 통해서 의천 전래본 경판이 일본으로 이운된 후에 『화엄경소』가 다시 판각되어 청계사에 소장되었음을 알 수 있다. 광주 청계사본과 관련하여 오용섭의 논저에서는 최근 예산 수덕사 무이당 소조여래좌상의 복장에서 발견된 『화엄경소』가 광주 청계사본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11] 서흥 귀진사본은 명종 11년(1556)부터 명종 19년(1564)까지 황해도 서흥 귀진사에서 판각된 판본이다. 간기와 시주질 등을 통해서 허응 보우(虛應 普雨)를 중심으로 당대 최고 승려들과 여러 사찰이 협력하여 『화엄경소』를 판각하였음을 알 수 있다.[12] 이상과 같이 17세기 이전에 간행된 판본은 3종류가 확인된다.[13]

2.1 삭녕 용복사본

경기도 삭녕 용복사에서 1628년부터 1631년에 걸쳐 판각된 『화엄경소』 판본이다.[14] 용복사는 경기도 삭녕의 수청산에 소재했던 사찰로 16세기 중반에 창건되어 18세기 중반에 폐사된 것으로 추정된다.[15] 사찰이 존립했던 기간은 길지 않지만 혜순(惠淳)의 주도로 1628년 6월부터 1643년 8월까지 15년간 집중적으로 불서를 간행하였다.[16] 당시 용복사에서 간행한 불서들을 살펴보면 <표 2>와 같다.[17]

9) 박도화, “靈通寺 大方廣佛華嚴經疏第41 變相圖,” 「강좌미술사」 제17호(2001), 101-103.
10) 오용섭(2018), 139.
11) 오용섭(2018), 141-142.
12) 이상백(2014), 484-488.
13) 이외에도 20세기 초 한글로 필사된 『화엄경소』가 있으나 간행본이 아니므로 제외하였음. 또한 간행본으로 합천 해인사 장경판전에 소장된 고려시대 합천 하거사에서 간행된 『화엄경소』 목판, 경주 기림사 소조비로자나불 복장에서 발견된 새로운 변상도를 수록한 『화엄경소』, 기존에 알려진 판본과 간기가 다른 동국대학교 중앙도서관 도록에 소개된 『화엄경소』 권 19-21, 국립중앙도서관 소장 『화엄경소』 권 119-120 등이 있지만 전체 판본이 아닌 일부만 보각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제외하였음.
14) 삭녕 용복사본 간기에 기록된 간행 시기와 각 권수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

간행년	권수(간행월)
1628	2(10)
1629	6(윤4), 7(5), 12(5), 14(5), 23(5), 54(5)
1630	26(3), 38(6), 51(12), 120(12)
1631	70(5), 56(11), 58(12), 62

오용섭(2018), 147.
15) 오용섭(2015), 122-124.
16) 오용섭(2018), 146.
17) 오용섭(2018), 146-147.

www.kci.go.kr

<표 2> 17세기 삭녕 용복사 간행 불서[18)]

간행시기	서명	간행시기	서명
1628	大慧普覺禪師書	1633	禪家龜鑑(留板)
1628	法集別行錄節要幷入私記	[1633]	禪敎釋
1628	禪源諸詮集都序	1634	誡初心學人文
1628	高峰和尙禪要	1634	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
1628	梵網經菩薩戒(留板)	1634	說禪儀
1630	淸虛集	1634	靈山大會作法節次
[1630]	禪敎訣	1635	天地冥陽水陸雜文
[1630]	心法要抄	1635	念佛作法
1628-1631	大方廣佛華嚴經疏	1634-1636	禪門拈頌集
1632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留板)	1636	楞伽阿跋陀羅寶經
1632	妙法蓮華經	1643	釋迦如來行蹟頌
1632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1643]	天台末學雲默和尙警策
1632	金剛般若波羅密經	1648	奇巖集(留鎭)
1632	雲水壇歌詞		

삭녕 용복사본『화엄경소』의 목판은 18세기까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1778년경 작성된『각도책판목록(各道册板目錄)』의 삭녕조(朔寧條)에는 불서들의 서명이 등장하는데, 서명을 확인해 보면 삭녕 용복사에서 간행한 불서들임을 알 수 있다.[19)] <표 3>은『각도책판목록』중 삭녕조에 수록된 목판의 서명을 정리한 표이다.

<표 3>『각도책판목록』에 기록된 삭녕 소장 목판[20)]

순번	서명	순번	서명
1	華嚴經	10	雲水文
2	拈頌經	11	預水文
3	法華經	12	志般文
4	圓覺經	13	諸般文
5	般若經	14	龜鑑
6	恩重經	15	淸虛集
7	楞嚴經	16	鞭羊集
8	中禮文	17	奇巖集
9	結手文	18	魚山集

<표 2>와 <표 3>을 비교해 보면『선문염송집(禪門拈頌集)』,『묘법연화경(妙法蓮華經)』,『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大方廣圓覺修多羅了義經)』,『선가귀감(禪家龜鑑)』,『청허집(淸虛集)』,『기암

18) 오용섭(2018), 146. ; 김단일(2019), 48-49. ; 서수정, "해인사 백련암 불서의 전래와 그 특징,"「서지학연구」 제81호(2020), 172.
19) 김단일(2019), 28.
20) 김단일(2019), 66.

www.kci.go.kr

집(奇巖集)』 등이 겹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외 <표 3>에는 용복사로 목판을 이운하였다고 알려진 『편양당집(鞭羊堂集)』이 등장한다.[21] 따라서 <표 3>의 "華嚴經"은 용복사에서 간행된 『화엄경소』로 생각된다.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였을 때, 1778년경까지는 삭녕 용복사본 『화엄경소』의 목판이 존재하였음을 알 수 있다.[22]

2.2 순천 송광사본

전라도 순천 송광사에서 1633년부터 1635년에 걸쳐 판각된 『화엄경소』 판본이다.[23] 현재 순천 송광사의 화엄전에 이 판본에 해당하는 『화엄경소』 목판 2,347판이 수장되어 있다. 현재 수장되어 있는 목판은 약 100판 정도가 결판되었다.[24] 순천 송광사본의 간기 내용을 살펴보면 서흥 귀진사본의 번각본임을 알 수 있다. 순천 송광사본 권 4, 권 22, 권 25, 권 99의 간기가 서흥 귀진사본의 간기와 일치한다.[25] 이외에 다른 사찰과 분각했던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권 44, 권 47의 권말에 곤양 서봉사에서 분각하여 송광사로 이운했다는 기록이 나타난다. 또 권 33의 권말에는 『화엄경소』와 『십지경론(十地經論)』을 보성 개흥사로 이운한 기록이 나오는데, 무슨 연유로 일부 권수만 보성 개흥사로 이운했는지 알 수 없다. 17세기 송광사에서 간행된 불서를 살펴보면 삭녕 용복사본과 마찬가지로 이력과정에 필요한 교재로써 간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표 4>는 17세기에 송광사에서 간행된 불서를 정리한 표이다.

<표 4>를 살펴보면 한 가지 특기할 점이 있는데 송광사에서는 1610년대에 불서를 간행한 후, 1630년대에 『화엄경소』를 간행하면서 다시 불서 간행을 시작하였다는 점이다. 순천 송광사본은 후쇄본이 존재하는데, 1686년에 영천 운부사와 안음 영각사에서 인경한 『화엄경소』 들이다. 두 후쇄본의 독특한 점은 간기를 따로 판각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순천 송광사본과 비교하였을 때 중간에 보판(補板)이 존재한다.[26]

---

21) 오용섭(2015), 126.
22) 김단일(2019), 28.
23) 순천 송광사본 간기에 기록된 간행 시기와 각 권수를 정리하면 아래의 표와 같음(서흥 귀진사본 간기 제외).

간행년	권수(간행월)	비고
1633	120(8)	
1634	24(4), 33(4), 44(7), 47(7), 50(12)	권 33 寶城 開興寺 移運 권 44, 47 昆陽 栖鳳寺 開刊
1635	12(3), 72(3), 73(3), 2(4), 21(4), 85(4), 118(5), 10, 36, 78	
연대 없음	26	

오용섭(2018), 150.
24) 문화재청, 불교문화재연구소, 「한국의 사찰문화재: 2014 전국 사찰 목판 일제조사」 전라남도 2(서울: 불교문화재연구소, 2015), 68-73.
25) 오용섭(2018), 149.
26) 오용섭(2018), 152-153.

www.kci.go.kr

<표 4> 17세기 순천 송광사 간행 불서[27)]

간행시기	서명	간행시기	서명
1608	大慧普覺禪師書	1612	地藏菩薩本願經
1608	勸修定慧結社文	1615	妙法蓮華經
1608	誡初心學人文	1618	金剛般若波羅密經
1608	法集別行錄節要幷入私記	1618	佛說預修十王生七經
1608	禪源諸詮集都序	1618	禪家龜鑑
1608	看話決疑論	1633-1635	大方廣佛華嚴經疏
1608	圓頓成佛論	1635	十地經論
1608	四法語	1637	雲水壇歌詞
1609	大佛頂如來密因修證了義諸菩薩萬行首楞嚴經	1638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1642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1609	高峰和尙禪要	1647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1610	禪家龜鑑(諺解)	1648	佛說阿彌陀經

3. 삭녕 용복사본과 순천 송광사본 분석

17세기 간행된 삭녕 용복사본과 순천 송광사본의 간행 배경을 파악하기 위해서 두 판본을 비교해 보고자 한다. 비교 항목은 판본의 형태, 원문, 간행 관련 기록으로 이를 통해서 두 판본 간의 차이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3.1 판본 형태

삭녕 용복사본과 순천 송광사본의 형태 사항을 표로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삭녕 용복사본과 순천 송광사본 형태 사항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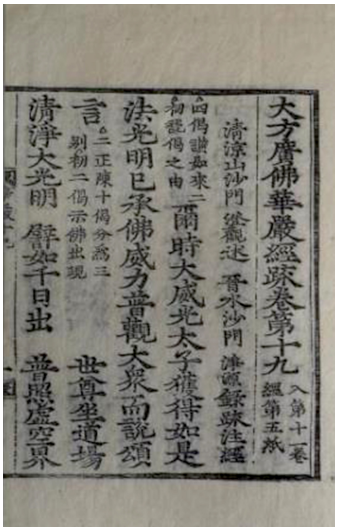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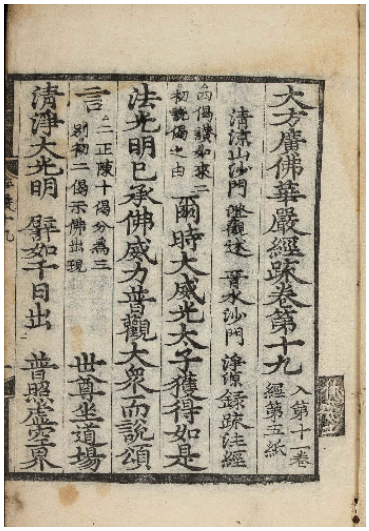
형태적 특징	삭녕 용복사본	순천 송광사본
광곽(匡郭)	四周單邊(混入)	四周單邊(混入)
계선(界線)	無界	有界
항자수(行字數)	6行15字	6行15字
어미(魚尾)	上下內向黑魚尾(混入)	上下內向黑魚尾(混入)
흑구(黑口)	上下大黑口(混入)	上下大黑口(混入)

27) 김단일(2019), 50.

www.kci.go.kr

형태적으로 삭녕 용복사본과 순천 송광사본의 가장 큰 차이는 계선의 유무이다. 삭녕 용복사본에는 권수제와 권말제, 간기 부분에만 계선이 존재하며 본문에는 계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순천 송광사본에는 계선이 존재한다. 광곽의 경우 두 판본 모두 사주단변(四周單邊)과 사주쌍변(四周雙邊)이 혼입되어 나타난다. 또한 어미의 경우 기본적으로 상하내향흑어미(上下內向黑魚尾)와 화문어미(花紋魚尾)가 혼입되어 있다. 흑구(黑口)의 경우도 삭녕 용복사본과 순천 송광사본 모두 기본적으로 판심에 흑구가 없지만 간혹 흑구가 혼입되어 나타난다. 종합해보면 삭녕 용복사본과 순천 송광사본의 가장 큰 형태적 차이는 계선의 유무이며, 다른 형태적 특징들은 유의미한 차이가 나지 않는다.

<표 6> 삭녕 용복사본과 순천 송광사본 사진 비교

삭녕 용복사본 (김천 직지성보박물관 소장)	순천 송광사본 (해남 대흥사 성보박물관 소장)
	
권 19 권수면	권 19 권수면

3.2 원문 비교

원문 비교 대상으로 권 19를 선택하였다. 권 19는 「비로자나품(毘盧遮那品)」 후반부와 「여래명호품(如來名號品)」 전반부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의천 전래본, 서흥 귀진사본, 삭녕 용복사본, 순천 송광사본이 모두 현존하는 권차가 권 19이기 때문에 권 19를 선택하였다. <표 7>은 의천 전래본, 서흥 귀진사본, 삭녕 용복사본, 순천 송광사본 권 19의 원문을 비교하여 정리한 표이다.

www.kci.go.kr

<표 7> 의천 전래본, 서흥 귀진사본, 삭녕 용복사본, 순천 송광사본 원문 비교

판본	원문	비고
의천전래본	[顯示十法與前自得十一智明, 有同有異. ○三利他益.]	순천 송광사본 “藏” 오각, “○” 누락.
서흥 귀진사본	[顯示十法與前自得十一智明, 有同有異. ○三利他益.]	
삭녕 용복사본	[顯示十法與前自得十一智明, 有同有異. ○三利他益.]	
순천 송광사본	[顯示十法與藏自得十一智明, 有同有異. 三利他益.]	
판본	원문	비고
의천전래본	[法財敎化, 卽滅闇智.]	삭녕 용복사본 “報” 오각.
서흥 귀진사본	[法財敎化, 卽滅闇智.]	
삭녕 용복사본	[法財報化, 卽滅闇智.]	
순천 송광사본	[法財敎化, 卽滅闇智.]	
판본	원문	비고
의천전래본	[圓明可貴, 故名爲寶.]	순천 송광사본 이체자 사용.
서흥 귀진사본	[圓明可貴, 故名爲寶.]	
삭녕 용복사본	[圓明可貴, 故名爲寶.]	
순천 송광사본	[圓明可貴, 故名爲宝.]	

4개 판본의 권 19를 원문 비교하였을 때, 특별히 내용이 다른 부분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주석의 출처를 나타내는 “○”과 “△”의 경우에는 순천 송광사본에서 많이 누락된 것이 확인되나 원문의 내용과 관련해서는 <표 7>에 나온 부분을 제외하고는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 7>에서 나온 다른 글자의 경우도 내용 교감에 의한 것이 아니라 판각 당시의 오각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내용적 측면에서는 삭녕 용복사본과 순천 송광사본이 큰 차이가 없다고 생각된다. 삭녕 용복사본과 순천 송광사본에서 의천 전래본이나 서흥 귀진사본에서 나오지 않은 오각이 발견되는 것은 두 판본 모두 짧은 기간에 간행되어 정밀한 교감이 이뤄지기 힘든 상황이었던 것에서 기인한다고 판단된다.

3.3 간행 관련 기록 분석

삭녕 용복사본과 순천 송광사본『화엄경소』는 거질의 불서로 간기면에 간행과 관련된 다양한 인물들이 판각되어 있다. 간기면에 판각된 인물들을 분류하면 크게 간행불사의 시주자 명단인 시주질, 화주(化主) 등 간행불사의 실무자 명단인 연화질, 각수와 연판 등 실제 판각을 진행했던 장인 명단인 공역질로 구분할 수 있다.[28] 다음에서는 삭녕 용복사본과 순천 송광사본의 간행 기록에 나타나는 인물들을 위에서 설명한 시주질, 연화질, 공역질의 3분류로 구분하여 파악하고자 한다.

먼저 삭녕 용복사본『화엄경소』의 시주질을 정리해보면 <표 8>과 같다.

28) 임윤수, “16·17세기 충청도 서산지역 사찰의 목판 제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8), 66-71.

www.kci.go.kr

<표 8> 삭녕 용복사본『화엄경소』시주질 시주자 명칭 및 인원수[29]

명칭	해당 인원(명)	비고
供養大施主	2	
供養布施兼大施主	2	
供養布施大施主	5	
供養布施都大施主	1	
卷大施主	38	
大施主	46	
都大施主	2	
施主	1	
養大施主	2	供養大施主의 오각으로 보임.
一卷大施主	4	
丁古里大施主	1	
諸經都大施主	2	
布施大施主	5	
布施施主	3	
自刊施主	2	
自刻兼卷大施主	4	
自刻卷大施主	1	
없음	308	이름만 판각되어 있으나 시주자로 보임.
총 인원수	429	

시주질에 다양한 명칭들이 등장한다. 대부분은 다른 불서들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명칭들이지만 삭녕 용복사본의 특징을 보여주는 명칭들이 몇 가지 있다. “卷大施主”, “一卷大施主”, “自刊施主”, “自刻兼卷大施主”, “自刻卷大施主”, “諸經都大施主”와 같은 명칭이다.

“卷大施主”, “一卷大施主”는 보통 각 권말의 간기면에 나타난다. 삭녕 용복사본의 경우 타 사찰판과 다르게 난외시주질이 잘 나타나지 않는데 이를 통해 “卷大施主”, “一卷大施主”는 1권 분량의 목판 판각에 소용되는 전체 비용을 시주한 시주자들로 생각된다. 따라서 삭녕 용복사본은 1권 분량의 목판 단위로 시주를 받아 간행 불사를 진행하였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 “自刊施主”, “自刻兼卷大施主”, “自刻卷大施主”의 경우 해당되는 인물인 성호(性浩), 숭우(崇祐), 옥련(玉連), 인기(印器), 충익(沖益), 학수(學修), 학연(學衍) 중에 숭우, 옥련을 제외하고는 다른 권의 간행 기록에서 각수로 등장한다. 이를 통해서 간행 불사에 참여한 각수이면서 불사에 시주를 한 인물들로 생각된다. “諸經都大施主”의 경우 상정(尙正)과 안성립(安成立)이 이에 해당하는데 상정은 삭녕 용복사본『대혜보각선사서』,『법집별행록절요병입사기』,『선원제전집도서』,『예수시왕생칠재의찬요』,『금강반야바라밀경』,『운수단가사』,『선가귀감』,『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천지명양수륙잡문』,『능가아발타라보경』에서 시주자로 등장하며, 안성립은『대방광원각수다라요의경』,『천지명양수륙잡문』에서 시주자로 등장한다. 이를 통해서 “諸經都大施主”는 용복사에서 간행된 다른 불서들의 판각에도 시주한 시주자들로

29) 김단일(2019), 53.

www.kci.go.kr

추정된다.

다음으로 연화질에도 다양한 소임들이 나타나는데, 간기면에 기록된 연화질 소임자를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삭녕 용복사본『화엄경소』연화질 소임 및 법명

소임	법명
幹善大化士, 大化士, 化士	惠淳
別坐	志默
校正	賾凜
飯頭	虛澤
熟刀	應卜, 承天
負木	承天
往者	信英

연화질을 통해서 간행 불사의 주관자인 “幹善大化士”, “大化士”, “化士” 혜순, 불사 과정에서 소요되는 침구, 음식 등을 관리하고 감독하는 별좌(別坐)인 지묵(志默), 교정(校正)인 색름(賾凜)이 삭녕 용복사본『화엄경소』간행 불사를 주도하였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특이하게 “往者”라는 소임이 등장하는데 삭녕 용복사본 간행 불서 중『화엄경소』이외에 삭녕 용복사본『선문염송집』과『천지명양수륙잡문』에서도 “往來人”, “來往”이라는 비슷한 소임이 나타난다. 그중『선문염송집』을 통해서 “往者”의 역할을 유추할 수 있다.『선문염송집』은 용복사 외에 양주 회룡사에서 분각되었는데 이를 통해서『선문염송집』의 “往來人”, “來往”은 단어 뜻 그대로 분각 과정 중 각 사찰을 왕래하면서, 업무를 조정했던 소임으로 추정된다. 삭녕 용복사본『화엄경소』의 “往者”도 이와 같은 소임으로 보인다.[30]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였을 때, 삭녕 용복사본『화엄경소』또한 용복사에서만 판각된 것이 아니라 다른 사찰에서 분각한 판본임을 유추할 수 있다.[31]

공역질에는 간행과 관련된 장인들의 이름이 등장한다. 간기면에 기록된 각수와 연판 담당자를 정리하면 <표 10>과 같다.

<표 10> 삭녕 용복사본『화엄경소』공역질 역할 및 법명과 성명

역할	법명 및 성명	비고
각수	戒能, 德玄, 覓撐, 妙安, 密英, 密玄, 法尙, 法哲, 雪浩(雪湖), 性甘, 崇祐, 靈什, 英俊, 玉連, 柳淵, 印器(印機), 一玄, 祖云, 仲益, 處俊(處准), 忠益(沖益), 淄密, 學冏, 學修, 學衍, 學耳, 學一(學日), 弘信, 元德信	處俊, 密英의 경우 獨刻이라는 소임으로 등장
연판	儀雄, 印天, 印天, 海先, 朴四海	

30) “往者”, “往來人”, “來往”의 경우 불서의 간기에도 등장하지만, 불상의 복장 발원문 등에도 등장하는 사례가 있음. 따라서 불사에 나타나는 “來往”의 역할에 대해서는 추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함.

31) 오용섭(2015), 130-133.

www.kci.go.kr

삭녕 용복사본『화엄경소』에는 “獨刻”이라는 역할이 등장한다. “獨刻”이라는 역할이 등장하는 간기면에는 각수명이 한 명의 이름만 기록된다. 이를 통해서 혼자서 한 권 분량에 해당하는 목판을 판각한 각수를 의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다음으로 순천 송광사본『화엄경소』의 간행 관련 기록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저 시주질을 정리해보면 <표 11>과 같다.

<표 11> 순천 송광사본『화엄경소』시주질 시주자 명칭 및 인원수[32]

명칭	해당 인원(명)	비고
兼大施主	1	
供養大施主	2	
供養施主	1	
大施主	98	
施主	174	
釘鐵大施主	1	
鐵物大施主	3	
布施大施主	1	
布施主	1	
없음	852	이름만 판각되어 있으나 시주자로 보임.
총 인원수	1,134	

순천 송광사본의 시주질을 살펴보면 다양한 시주자들에 대한 명칭이 등장한다. 다만 특징적인 명칭은 나타나지 않는다. 순천 송광사본의 시주질은 승려보다 속인 시주자가 많이 등장한다. 이러한 점은 후술할 속인 화주가 나오는 점과 함께 보았을 때, 순천 송광사본 간행 불사에 속인들이 활발히 참여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순천 송광사본에는 대시주, 시주라는 명칭 대신 대선사(大禪師) 등의 직위로 기록된 인물들이 등장한다. 간행 불사에 참여한 것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은 시주자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이에 해당하는 인물들을 정리해보면 <표 12>와 같다.

<표 12> 순천 송광사본『화엄경소』시주질 직위 표기 승려

직위	법명	직위	법명
大禪師	戒熏	大禪師	儀玄
前金城判事	斐能	前忠淸摠攝都大禪師	太能
大禪師	應默	大禪師	太湖
大禪師	忠彦	前全羅都摠攝融妙都大禪師	熙玉

연화질을 살펴보면 순천 송광사본도 다양한 소임과 소임자들의 이름이 등장한다. 송광사본 간기면에 기록된 연화질 소임자들을 정리하면 <표 13>과 같다.

32) 김단일(2019), 58.

www.kci.go.kr

<표 13> 순천 송광사본『화엄경소』연화질 소임 및 법명과 성명

소임	법명 및 성명
大功德主, 執務大功德主	覺性, 性玄, 天浩(天湖)
執務, 執事	性玄, 順軒, 學元, 行演
勸化, 勸化士, 大化士, 化士, 大化主, 化士幹善道人, 化主, 化主幹善	太修, 敬寶, 敬言, 能珠, 法欽, 湛玄, 彦弘, 天浩, 竺岑, 學元, 行漁, 行演, 金銀澤, 金軒世, 李春發, 朱求上, 陳應男, 車億
別坐	敬閑, 淡允, 性明, 順心, 通海, 行演, 玄覺, 玄坦, 惠寬
助緣, 助化	萬進, 一浩, 海英, 石春, 玉眞
校, 校正, 校正士, 執事校正	覺性, 熙玉, 性眼, 淳玉, 淳玉

일반적인 불서의 경우 화주가 한 명 또는 두 명인 경우가 많으나, 송광사본의 경우 화주로 많은 사람들이 나타난다. 이를 통해서 목판의 판각이 여러 사람들에 의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른 특징적인 부분은 화주로 속인이 나타난다는 점으로 순천 송광사본『화엄경소』간행 불사에 거사들의 영향력이 컸음을 유추할 수 있다. 대공덕주(大功德主)는 간행불사의 발원자로 생각된다. 대공덕주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성(覺性), 성현(性玄), 천호(天浩)이다. 각 권의 연화질에 다양한 화주들이 나오지만 대공덕주는 동일한 인물들이 나오는 것을 통해서 대공덕주는 간행 불사의 발원자라고 생각해볼 수 있다. “執務”, “執務大功德主”, “執事”, “執事校正”, “執事大功德主”는 간행불사의 총책임자로 생각된다. 성현(性玄), 순헌(順軒), 학원(學元), 행연(行演)이 해당 소임으로 간기에 나타난다. 성현의 경우는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이 순천 송광사본『화엄경소』간행 불사의 발원자로 생각되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이다. 따라서 순헌, 학원, 행연도 순천 송광사본『화엄경소』간행 불사에 있어서 총책임자 역할을 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다음으로 순천 송광사본 공역질에 나온 각수와 연판 담당자를 정리하면 <표 14>와 같다.

<표 14> 순천 송광사본『화엄경소』공역질 역할 및 법명과 성명

역할	법명 및 성명	비고
각수	敬軒, 敬冶, 淡敏, 淡元, 淡正(湛淨), 大儀, 道英, 明淨, 文信, 文彦, 善益, 善仁, 善和, 性玄, 順行, 勝連, 信悟, 信哲, 雙玉, 如敏, 靈彦, 靈印, 元忍, 元日(元一), 隱浩, 應先, 應玄, 儀雲, 印英, 印玄, 印浩, 一光, 一菴, 一岩, 一旭, 日旭, 正行, 宗戒, 俊明, 贊敬, 天日, 哲言, 哲孝, 淸信, 太靈, 太祥, 學倫, 學修(學水), 學淳, 學軒, 玄悟, 玄玉, 玄藏, 玄竺, 弘彦, 尹秋敬, 丁貴男	弘彦의 경우 校刻, 校正刻이라는 소임으로 등장하며, 日旭은 變相刻手라는 소임으로 등장함.
연판	道英, 法淡, 思哲, 尙俊, 順軒, 印修, 天言, 學融	

순천 송광사본에는 “校刻”, “校正刻”, “變相刻手”라는 역할이 등장한다. “校刻”, “校正刻”이라는 역할은 교정과 판각을 함께한 각수로 생각된다. 이 역할로 홍언(弘彦)이라는 승려가 기록되어 있는

www.kci.go.kr

데, 홍언 이외에는 “校刻”, “校正刻”이라는 역할의 승려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서 홍언은 각수이지만 학식도 높은 매우 독특한 위치에 있는 승려라는 것을 유추해볼 수 있다. “變相刻手”라는 역할은 변상도를 판각하는 역할로 생각되며, 간행 관련 기록도 변상도에서 나타난다.

지금까지 삭녕 용복사본과 순천 송광사본『화엄경소』의 판본 형태, 원문, 간행 관련 기록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삭녕 용복사본과 순천 송광사본의 형태적인 차이는 계선의 유무가 확인되나 그 외 다른 형태적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원문을 비교한 결과 삭녕 용복사본과 순천 송광사본 모두 다른 판본보다 오각이 많이 발견되었다. 다만 원문의 내용은 이전 판본들과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삭녕 용복사본과 순천 송광사본이 이전에 간행된 서흥 귀진사본과 내용적으로 큰 차이가 나지 않았던 점과 순천 송광사본이 서흥 귀진사본의 번각본이라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삭녕 용복사본 또한 서흥 귀진사본을 저본으로 하였을 가능성이 높다. 다만 삭녕 용복사본은 필요에 따라서 계선만 삭제한 것으로 생각된다. 삭녕 용복사본과 순천 송광사본 간행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결과 삭녕 용복사본과 순천 송광사본 모두 다른 사찰에서 분각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삭녕 용복사본 간행에 참여한 인원이 순천 송광사본 간행에 참여한 인원보다 더 적었음을 알 수 있다.

4. 17세기 간행『대방광불화엄경소』와 승려문파의 관계

삭녕 용복사본과 순천 송광사본이 각각 간행된 이유를 형태적 특징, 원문 비교로는 알기 어렵다. 다만 간행된 시기가 17세기였다는 점과 간행 관련 기록에 등장하는 다양한 인물들을 통해서 당시 시대적 변화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17세기는 임진왜란을 통해서 부상한 청허 휴정과 그의 사제 부휴 선수를 중심으로 불교계가 재편되기 시작하였다. 그리고 점차 선종의 법맥 전승을 일차적 기준으로 하면서 법통과 계파 인식(系派 認識)을 공유하는 개념인 승려문파가 성립되었다.[33] 이러한 과정에서 임제태고법통설과 삼문수학, 이력과정이 성립되었다.[34] 불서 간행과 관련해서 17세기에는 이력과정과 관련된 사집(四集), 사교(四敎) 불서가 많이 간행되었다. 또한 이러한 사집, 사교 불서의 간행에는 특정 승려의 영향 하에서 친분과 사승관계로 이어진 다양한 승려들이 함께 참여하였다.[35] 이를 삭녕 용복사본과 순천 송광사본『화엄경소』간행에 대입해보면『화엄경소』는 당시 이력과정에 포함된 불서로써, 삭녕 용복사본과 순천 송광사본의 간행 불사는 17세기부터 성립되기 시작한 승려문파와 관련이 깊다고 생각된다.

다음에서는 삭녕 용복사본과 순천 송광사본의 간기면에 기록된 인물들을 분석하여 두 판본과 승려문파의 관계를 살펴보고자 한다. 간기면에 기록된 인물들의 승려문파 분석은 영조 40년(1764) 사암

33) 김용태,「조선 후기 불교사 연구」(성남: 신구문화사, 2010), 113.
34) 손성필, 전효진, “16·17세기 ‘사집(四集)’ 불서의 판본 계통과 불교계 재편,”「한국사상사학」제58집(2018), 276-277.
35) 손성필, 전효진(2018), 262-26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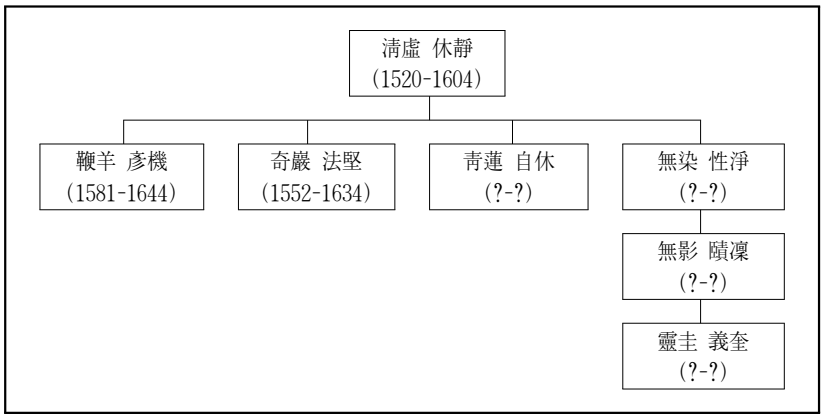
www.kci.go.kr

채영(獅巖 采永)에 의해 완주 송광사에서 간행된 한국의 선종 계보를 정리한『서역중화해동불조원류(西域中華海東佛祖源流)』(이하『불조원류』)와 각종 17세기 인물의 문집 기록을 기준으로 한다.

4.1 삭녕 용복사본과 청허문파

연화질의 기록을 통해서 혜순, 지묵, 색름이 삭녕 용복사본『화엄경소』간행 불사를 주도하였던 인물임을 알 수 있다. 이들 중『불조원류』에 기록이 남아 있는 인물은 교정으로 간행 불사에 참여했던 색름이다. 삭녕 용복사본『화엄경소』간행과 관련된『불조원류』에 기록된 청허문파의 계보도를 살펴보면 <표 15>와 같다.

<표 15> 삭녕 용복사본『화엄경소』와 관련된『불조원류』청허문파 계보도[36]



<표 15>에서 색름이 청허 휴정의 제자인 무염 성정(無染 性淨)의 제자임이 확인된다.[37] 색름에 대한 기록은 허목(許穆, 1595-1682)의 문집인『기언(記言)』, 윤선거(尹宣擧, 1610-1669)의 문집인『노서유고(魯西遺稿)』, 편양 언기(鞭羊 彦機, 1581-1644)의 문집인『편양당집』에서 확인된다.『기언』에서는 백운산을 소개하면서 숭정연간에 오대산 승려인 색름이 백운사를 중창하였고, 또한 상선암을 창건하였으며 그 아래에 색름과 자휴(自休)의 부도가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38] 여기서 언급된 자휴는 <표 15>에서 확인할 수 있는 청련 자휴(靑蓮 自休)로 생각된다.『노서유고』에서는 오대산 중대를 기행하면서 적멸보궁을 색름이 중창했으며, 현재는 그의 제자 의규(義珪)가 홀로 머물고 있다고

36) 김단일(2019), 64.

37) 삭녕 용복사본『화엄경소』외에 "賾凜"이라는 법명이 사용된 간기 및 화기, 발원문이 전부 비슷한 시기에 기록되었으며 이를 통해 간기와 화기, 발원문에 나타나는 색름이 동일인임을 추정할 수 있음.

38)『記言』卷27「白雲山」.
"… 其上白雲寺, … 崇禎間, 五臺僧賾凜重創云. … 其上上禪, 入山中巖洞二十里, 山深路絶而極者, 賾凜所築. 其下般若, 有自休, 賾凜浮圖. …."

www.kci.go.kr

기록하고 있다.[39] 의규는 『불조원류』에 기록된 색름의 제자로 생각된다. 물론 서로 한자가 다르지만 색름의 제자가 의규라는 사실이 일치함으로 동일인일 가능성이 높다. 『편양당집』에서는 보개산 대승암을 색름이 1620년부터 1624년까지 중건한 사실을 기록하고 있으며, 또한 색름이 17세에 묘향산으로 가서 청허 휴정에게 가르침을 받고 후에 다시 금강산으로 가서 청련 자휴의 문하에 들어갔다는 색름의 간단한 행장을 기록하고 있다.[40] 위 기록들을 종합해보면 색름은 청련 자휴의 제자로 오대산의 중대, 보개산 대승암, 백운산 백운사와 상선암에서 불사를 진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1620년부터 1624년까지는 보개산 대승암을 중창하고, 숭정 연간에 백운산 백운사를 중창하였다는 사실에서 삭녕 용복사본 『화엄경소』의 교정은 대승암 또는 백운사에서 진행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한 가지 특이한 점은 『불조원류』에서는 색름이 무염 성정의 제자로 기록되어 있으나, 『편양당집』에서는 청련 자휴의 제자로 기록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사승관계에 대한 정확한 내용은 알 수 없으나, 저술 시기가 조금 더 빠른 『편양당집』에 나오는 사실이 조금 더 정확할 것이라 판단된다.

『불조원류』에는 기록되지 않았지만, 화주인 혜순 또한 청허문파와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기록이 존재한다. 혜순이 찬한 삭녕 용복사본 『심법요초(心法要抄)』의 발문에서는 허균이 찬한 『청허집』 서문과 사명당 비문에 기록된 종파 승계에 착오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착오를 바로잡기 위해서 『심법요초』에 「강서백장황벽임제사대사상당서(江西百丈黃蘗臨濟四大師上堂序)」, 「서산증완허당전법(西山贈玩虛堂傳法)」 등을 부록하였음을 기록하고 있다.[41] 허균이 주장했던 종파의 승계는 사명문파의 주도에 의해 성립된 고려나옹법통설(高麗懶翁法統說)로 나옹 혜근(懶翁 惠勤, 1320-1376)을 법맥상의 조사로 비정한 법통설이다. 그러나 허균이 반역죄로 참형당하고 인조반정이 일어남에 따라 허균이 주장했던 고려나옹법통설은 부정되고, 새롭게 임제태고법통설이 편양 언기에 의해서 주창되었다.[42]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바탕으로 혜순의 발문을 살펴보면 혜순이 청허 휴정의 법통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혜순이 당시 청허문파 특히 편양 언기와 매우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외에도 『편양당집』에 혜순이 주관했던 삭녕 용복사 간행불사에 대한 사실을 기록한 내용이 있으며,[43] 삭녕 용복사본 『천지명양수륙잡문』의 발문을 편양 언기가 작성하였다.[44] 편양 언기

39) 『魯西遺稿』 續卷3 「巴東紀行」.
"… 七日. 早登中臺, 歷獅子庵金夢庵, 庵上數十步許, 乃建一舍, 鐵瓦重壁, 扁曰寂滅寶宮, 內不置金像, 只設佛影, 亂插雜色紙花而已, 有釋賾凜刱立云, 夢庵中有僧義珪獨居, 乃凜之高足也. …."

40) 『鞭羊堂集』 卷2 「寶盖山大乘庵記」.
"… 萬曆四十八年, 師自楓岳, 來就破執, 舊基帖石防除, 以固其基, 召匠石聚材木, … 又明年丹靑畢, … 師松都人, 年十七, 西入妙香山, 事登階大師, 尋抵蓬萊, 入靑蓮之室. …."

41) 오용섭(2015), 139-140.

42) 김용태(2010), 173-177.

43) 『鞭羊堂集』 卷2 「經板後跋」.
"… 是以我國朝全盛時, 上下同心勉力, 共成板本, 留鎭山門, 其來已久, 且經離難, 多有所失於兵火, 而存者, 字畫壞缺, 未穩看讀, 幾將就滅. 適有沙門某人, 發廣大心, 立四弘願, 乃曰若使大乘經典, 重成板刻, 流布衆生界中, 人人得聞我佛之敎, 而薰發種性則庶幾報佛恩也. 旣報佛恩, 卽爲報四恩也. 於是卽聚華嚴、法華、圓覺、楞嚴、般若、梵網等經, 傳燈、拈頌、禪要、書狀、禪源、別行、西山集于京畿朔寧龍腹寺. …."

www.kci.go.kr

는 청허 휴정의 말년 제자로 임제태고법통설을 주장하여 스승의 유업을 잇고자 하였으며 삼문수행체계 등을 정립하여 청허 휴정의 적전으로 알려진 인물이다.[45] 이 기록들을 통해서 혜순과 편양언기 사이에 교유관계가 있었으며, 편양 언기 또한 삭녕 용복사 간행 불사에 어느 정도 관련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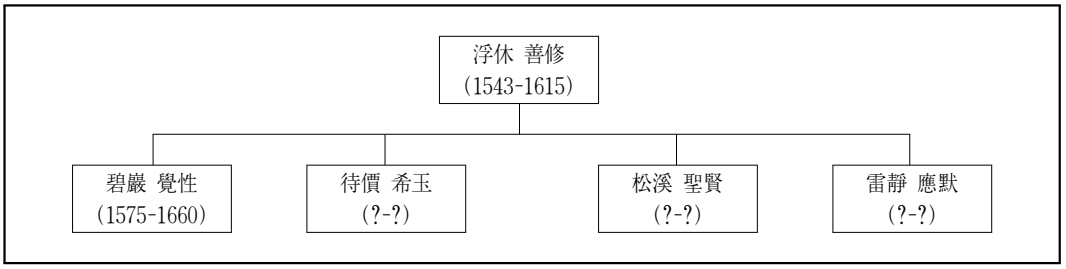
이외에도『편양당집』발문을 살펴보면, 백운사에서 판각하고 용복사로 옮겨서 수장한다는 기록[46]이 있다.[47] 비록 삭녕 용복사본『화엄경소』보다 간행 시기가 늦지만 승려 문집의 간행이 승려 문파의 형성과 깊은 연관이 있었음을 생각해 볼 때, 이를 통해서도 삭녕 용복사본『화엄경소』의 간행과 청허문파의 연관성을 짐작해 볼 수 있다.[48] 삭녕 용복사에서 간행된 사집과 사교 불서들이 편양언기의 영향으로 간행되었는데 이 또한 삭녕 용복사본『화엄경소』의 간행과 청허문파의 연관성을 보여준다.[49]

이상의 내용들을 정리하였을 때, 삭녕 용복사본의 간행 불사는 청허문파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2 순천 송광사본과 부휴문파

순천 송광사본『화엄경소』의 연화질을 살펴보면 가장 중요한 대공덕주에 각성, 성현, 천호가 기록되어 있다. 이들 중『불조원류』에 기록이 남아 있는 인물은 각성과 성현이다. 순천 송광사본『화엄경소』간행과 관련된『불조원류』에 기록된 부휴문파의 계보도를 살펴보면 <표 16>과 같다.

<표 16> 순천 송광사본『화엄경소』와 관련된『불조원류』부휴문파 계보도[50]



44) 오용섭,(2015), 136-137.
45) 김용태(2010), 129.
46)『鞭羊堂集』卷1「跋文」.
"… 歲在赤猪, 暮春之旣望, 刻于白雲, 藏於龍腹. …."
47) 오용섭(2015), 126.
48) 손성필(2013), 254-255.
49) 손성필, 전효진(2018), 259-263.
50) 김단일(2019), 68.

www.kci.go.kr

연화질 외에도 순천 송광사본『화엄경소』간행 불사와 관련한 기록이 존재한다.『조계산송광사사고(曹溪山松廣寺史庫)』「화엄경판개간기(華嚴經板開刊記)」에는 순천 송광사본『화엄경소』간행 불사에 각성, 성현, 담현(淡玄), 법흠(法欽), 천호(天湖), 성은(性誾), 홍준(弘俊)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51] 이 중 "二師"라고 기록된 "性"과 "玄"은 연화질에 등장하는 각성과 성현으로 생각된다. 여러 기록을 종합하였을 때, 각성은 부휴 선수의 전적 제자이자 인조대에 도총섭으로 임명되었던 벽암 각성(碧巖 覺性, 1575-1660)임을 알 수 있다. 성현 또한 부휴 선수의 제자인 송계 성현으로 생각된다.[52]『송광사주지계보(松廣寺住持系譜)』를 살펴보면 1640년경에 송광사 주지가 "松溪 性玄"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이를 통해서 순천 송광사본『화엄경소』간행 불사 당시에 성현이 송광사 내에서 영향력을 가지고 주도적으로 불사를 진행하였음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연화질 및 시주질과「화엄경판개간기」의 "五人"인 담현, 법흠, 천호, 성은, 홍준의 경우 그 사승관계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나 이들 중 담현과 법흠의 경우, 17세기 송광사의 다른 경판, 불상, 불전 불사 발원문에 화주로써 등장한다.[53] 1609년에 송광사 승려들이 임진왜란 이후 파괴된 송광사를 중건하기 위해 부휴 선수에게 중건해주기를 요청하였다는 사실이 있으므로 17세기 이후 송광사 불사에 화주로 참여한 담현과 법흠의 경우도 어느 정도 부휴문파와 관련되어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54]

시주질에 기록된 희옥(熙玉)과 응묵(應默)도 <표 16>에서 나타나듯이『불조원류』에 부휴 선수의 제자로 기록되어 있다.[55]

부휴 선수의 제자 외에도 부휴 선수와 관련된 인물도 시주질에 등장한다. 시주질에 太能이라는 승려가 등장하는데, 태능은『불조원류』에서는 청허 휴정의 제자로 등장한다. 그러나『대각등계집(大覺登階集)』「사보은천교원조국일도대선사행장(賜報恩闡教圓照國一都大禪師行狀)」에는 부휴 선수에게 배웠던 제자 중 가장 뛰어났던 삼걸(三傑)에 태능이 포함되었다는 기록이 존재한다.[56] 또한 기존 선행 연구를 통해서 태능의 경우 처음 부휴 선수에게 수학하였다가 후에 청허 휴정에게 법을 전해 받았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57]

---

51)『曹溪山松廣寺史庫』雜部「華嚴經板開刊記」.
"… 在癸酉春, 性玄二師, 自頭流山八萬峰下飛錫, 而至法寶玄珠炯炯雙映, 曰昔瞿曇四十九年說法, 無一法焉, 豈不惜哉, 苦海滔天, 靜之者誰, 疑山昏垓, 明之者無. 吁, 伯禹不理, 萬民共魚, 仲尼不作, 王道其昏乎, 我二人盍求乎. 吉祥眞徑, 使重昏世界, 明日月而不晦, 愚蒙衆生, 開正路而不迷乎. 乃使桑門子五人, 發揮斯道, 共貞厥功, … 曰淡玄, … 曰法欽, … 曰天湖, … 曰性誾, … 曰弘俊, … 則雖曰神力之尙贊, 然非二師五人之宣化乎. …."

52)『불조원류』에서는 "聖賢"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龍洲日記』와『松廣寺住持系譜』등의 사료들을 검토한 결과, "聖賢"과 "性玄"은 동일 인물로 판단됨.

53) 김단일(2019), 70-72.

54) 김단일(2019), 71.

55)『불조원류』에서는 "希玉"이라고 기록되어 있는데,『조계산송광사사고』와 송광사에 현전하는 희옥의 승탑인 待價大師 融妙塔의 명문 등을 검토한 결과, "希玉"과 "熙玉"은 동일 인물로 판단됨.

56)『大覺登階集』卷1「賜報恩闡教圓照國一都大禪師行狀」.
"… 有一宰官訪休, 扣證禪旨, 令門徒各賦偈句, 試其才否. 時雲谷冲徽、逍遙太能、松月應祥, 號爲三傑. …."

www.kci.go.kr

이상의 내용들을 정리하였을 때, 순천 송광사본의 간행 불사는 부휴문파와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다.

5. 맺음말

이상으로 17세기 간행된 삭녕 용복사본과 순천 송광사본『화엄경소』의 판본 및 원문, 간행 관련 기록을 통해서 간행 배경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본고에서 서술한 내용을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 삭녕 용복사본과 순천 송광사본의 형태, 원문, 간행 관련 기록을 비교한 결과, 판본 형태는 계선의 유무가 확인되나 그 외 다른 형태적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원문을 비교한 결과 삭녕 용복사본과 순천 송광사본 모두 다른 판본보다 오각이 많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정밀한 교감이 이뤄지지 못한 채 짧은 시간에 간행되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다만 이전에 간행된 판본과 내용 차이 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점과 순천 송광사본이 서흥 귀진사본의 번각본인 점을 통해서 삭녕 용복사본 또한 서흥 귀진사본을 저본으로 간행하였을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된다. 삭녕 용복사본과 순천 송광사본 간행 관련 기록을 검토한 결과 삭녕 용복사본과 순천 송광사본 모두 다른 사찰에서 일정한 분량을 나누어 판각한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간행 관련 기록 중 연화질, 시주질에 등장하는 승려들이 조선 후기에 등장한 승려문파와 관련이 있음이 확인된다. 삭녕 용복사본의 경우 교정의 소임을 맡은 색름이 청허문파의 일원이었으며, 또한 화주인 혜순이 청허 휴정의 전법 제자인 편양 언기와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었다는 것이 확인된다. 순천 송광사본의 경우 간행 불사의 발원자인 각성과 성현이『불조원류』에 부휴 선수의 제자로 기록되어 있었다. 또한 간행 불사의 실무자인 법흠과 담현이 부휴문파와 관련된 다른 불사에도 화주로 등장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시주질에 등장하는 희옥, 응묵, 태능 등이 부휴 선수의 문하에서 수학한 인물들임이 확인되었다.

전술한 사항을 종합하였을 때, 삭녕 용복사본과 순천 송광사본『화엄경소』의 간행 배경은 각각 청허문파와 부휴문파에서 필요한 강학교재 간행이었다고 생각된다. 이를 통해서 간행 불사에 있어서 각 사찰간의 지역적 유대 이외에도 사승관계를 중심으로 한 승려문파의 영향이 함께 작용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17세기 초중반에도 어느 정도 사승관계를 중심으로 문파의식이 싹트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존에 알려진『불조원류』에 나타나는 18세기의 문파의식과는 약간의 차이가 존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이 삭녕 용복사본과 순천 송광사본『화엄경소』의 간행은 승려문파가 간행 불사에 미쳤던 영향력과 17세기 문파 의식 및 그 현황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57) 김용태(2010), 122-123.

www.kci.go.kr

<참고문헌>

「西域中華海東佛祖源流」(한古朝21-53-17)
「松廣寺住持系譜」(순천 송광사성보박물관 소장)

권오영 역.「龍洲日記」. 포천: 용주연구회, 2014.
김단일. "17세기 조선의『大方廣佛華嚴經疏』간행과 승려 문파의 상관성." 석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9.
김용태.「조선 후기 불교사 연구」. 성남: 신구문화사, 2010.
노기춘. "順天 松廣寺 開板佛事에 관한 연구(Ⅱ) - 壬亂以後 有刊記 佛書를 中心으로."「서지학연구」제26집(2003). 303-346.
문상련. "수덕사 塑造 여래좌상 腹藏 典籍類 고찰."「정토학연구」제30집(2018). 161-198.
문화재청, 불교문화재연구소.「한국의 사찰문화재: 2014 전국 사찰 목판 일제조사」전라남도 2. 서울: 불교문화재연구소, 2015.
박도화. "靈通寺 大方廣佛華嚴經疏第41 變相圖."「강좌미술사」제17호(2001). 97-125.
박도화. "碧巖 覺性 발원 順天 松廣寺刊 大方廣佛華嚴經疏 變相圖."「강좌미술사」제52호(2019). 143-171.
서수정. "해인사 백련암 불서의 전래와 그 특징."「서지학연구」제81호(2020). 157-190.
손성필. "16·17세기 불교정책과 불교계의 동향." 박사학위논문. 동국대학교 대학원. 2013.
손성필, 전효진. "16·17세기 '사집(四集)' 불서의 판본 계통과 불교계 재편."「한국사상사학」제58집(2018). 229-282.
송일기. "順天 松廣寺 刊行 佛書考 - 朝鮮朝 有刊記佛書를 중심으로."「서지학연구」제10집(1994). 523-552.
오용섭. "혜순이 간행한 용복사 불서."「서지학연구」제63호(2015). 119-148.
오용섭. "조선시대『대방광불화엄경소』의 간행."「서지학연구」제76호(2018). 135-158.
이상백. "歸眞寺와 간행 불경 연구."「서지학연구」제58집(2014). 465-495.
이종수. "조선후기 불교 履歷科目의 선정과 그 의미."「한국사연구」제150집(2010). 115-142.
임윤수. "16·17세기 충청도 서산지역 사찰의 목판 제작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 2018.
조명제. "朝鮮後期 松廣寺의 전적 간행과 사상적 경향."「보조사상」제32집(2009). 1-41.
천혜봉. "義天의 入宋求法과 宋刻 注華嚴經板."「동방학지」제56권(1987). 903-919.
한국학문헌연구소.「曹溪山松廣寺史庫」. 서울: 아세아문화사, 1977.
『불교기록문화유산아카이브』<http://kabc.dongguk.edu/index>. [접속일 2020.8.19.]

www.kci.go.kr

『한국고전종합DB』 <http://db.itkc.or.kr/>. [접속일 2020.8.19.]

• **국문참고자료의 영어표기**
(English translation / Romanization of references originally written in Korean)

Archives of Buddhist Culture. <https://kabc.dongguk.edu/index>. [cited 2020.8.19.]

Cheon, Hye-Bong. 1987. "Ui-Chon(義天)'s Study abroad in Sung and the Sung-woodblocks of notes on Avatam saka-sutra." *The Dong Bang Hak Chi*, 56: 903-919.

Cho, Myung-Je. 2009. "Songgwangsa's Publication of Books and Their Trend of Thought in the Latter Period of the Joseon Dynasty." *Journal of Bojo Jinul's Thought*, 32: 1-41.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 Research Institute of Buddhist Cultural Heritage. 2015. *Research Report of Korea Buddhist Heritage: 2014 Comprehensive Wood Blocks Report of Temples Nationwide*. Seoul: Research Institute of Buddhist Cultural Heritage.

Im, Yoon-Soo. 2018. *A Study on the Production of Wood-block in Buddhist Temples from Seosan area, Chungcheong-do, during the 16th and 17th Century*.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in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Institute for the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DB. <http://db.itkc.or.kr/>. [cited 2020.8.19.]

Kim, Dan-Il. 2019. *Correlations between Publication of『Daebanggwangbul-hwaeomgyeongso』and the Sects of Monks in the 17th Century of the Joseon Dynasty*. Master's Thesis. The Graduate School of Korean Studies in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Lee, Jong-Su. 2010. "Selection of Buddhist Education Curriculum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e Journal of Korean History*, 150: 115-142.

Lee, Sang-Baek. 2014. "The Study of Gwijin-sa and Buddhist Scriptures Published by Gwijin-sa."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58: 465-495.

Moon, Sang-leun. 2018. "A Study on the Relics and Votive Objects Found in the Seated Clay Buddha of Sudeok Buddhist Temple." *Journal of The Pure Land Buddhism Studies*, 30: 161-198.

Oh, Yong-Seob. 2015. "A Study on Buddhist Books Published Under the Leadership of Buddhist Monk Hyesun at Yongboksa Temple."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63: 119-148.

Oh, Yong-Seob. 2018. "A Bibliographical Study on Daebanggwangbul-Hwaeomgyeongso

www.kci.go.kr

Published in the Joseon Dynasty."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76: 135-158.

Park, Do-Wha. 2001. "The Woodblock Print of Annotated Avatamsaka Sutra Vol. 41 by the Priest Jeongwon which had been Engraved in Yeongtong-sa at Kaeseong." *The Art History Journal*, 17: 97-125.

Park, Do-Wha. 2019. "Illustration of the Daebanggwangbul-hwaeomgyeong-so printed at Songgwang-sa Temple in Suncheon devoted by the High Priest Byeok-am Gakseong." *The Art History Journal*, 52: 143-171.

Rho, Gi-Chun. 2003. "A Study on the Woodblock Engraving Works of Songkwang Temple."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26: 303-346.

Seo, Su-Jung. 2020. "A Study on the Transmission and the Characteristics of Buddhist Old Books at Baekryeonam in Haeinsa." *Journal of Studies in Bibliography*, 81: 157-190.

Sohn, Seong-Phil. 2013. *The Chosŏn Court Policies on Buddhism and the Buddhist Activities in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Doctoral Thesis. Dongguk University Graduate School.

Sohn, Seong-Phil, & Jeon, Hyo-Jin. 2018. "Reorganization of the Buddhism Seen through the System of 'Sajip' Printed in the 16th and 17th Centuries." *The Society for Study of Korean History of Thoughts*, 58: 229-282.

www.kci.go.kr